



서울 강남을 출마한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11일 대치동 선거사무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환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FTA검투사 김종훈, 정동영을 베다

### 강남을 새누리 후보로 당선 FTA 찬반 대리전으로 주목 미봉인 투표함 발견돼 논란

서울 강남을 놓고 벌어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검투사'와 '반(反) 한·미 FTA 기수'의 대결은 '검투사'의 승리로 끝났다. 11일까지 진행된 19대 총선 개표 결과(밤 11시 기준)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강남 벨트는 야권의 대통령 후

보까지 지낸 정 후보 대신 정치 신예인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결은 'FTA 찬반 세력의 대리전' 성격도 띠었다. 김 후보는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 모두에서 FTA 협상을 주도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달 12일 정 후보가 경선을 통해 민주당 강남을 후보로 정해지자, 일주일도 안돼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으로 김 후보를 그곳에 출정시켰다. 이후 두 사람은 선거 기간내내 각종 토론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펼쳐왔다. 정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

보다 '인물론'을 강조했고, 선전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웃긴 못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개표장 등에서 자물함을 테이프 봉인하지 않은 투표함, 봉인은 했지만 봉인테이프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함, 바닥에 테이프가 아예 붙여져 있지 않은 투표함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관인들 사이에 고성이가 오가고 정 후보 측은 투표함 개봉에 반대하기도 했다. 문제가 발견된 투표함 가운데 일

원2동 제1투표소, 수서동 제4투표소, 개포4동 제4투표소 등 강남을 지역구에서 옮겨온 투표함이 14개, 압구정동 등 강남갑 지역구에서 옮겨온 투표함이 10개로 확인됐다. 강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함의 문제를 인정하고 별도 분리한 채 다른 투표함의 개표를 재개했다. 향후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놓고 잡음이 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선거관위는 "급하게 투표함을 밀봉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고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백일현 기자 kaysme@joongang.co.kr

# 민병두, 재도전서 홍준표 꺾어

### 최대 격전지 동대문을 승리

동대문구의 민심은 결국 민병두(53·민주통합·사진) 후보를 선택했다.

서울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이곳은 개표 초반부터 민 당선자가 여당의 거물인 홍준표(57·새누리) 후보를 8~9%포인트 크게 앞서가며 일찌감치 승산을 굳혔다. 민 당선자는 "제가 이긴 것은 제 개인의 승리나 영광이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이 부끄러운 의무이고 동대문구 주민들이 부여한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치부장 겸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민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공천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패한 뒤 절치부심하며 지역구를 다져왔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홍 의원은 집권당



의 원내대표, 당대표로서 지난 4년 동안 1인자, 2인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MB정부 실정에 있어 홍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격해 왔다. 민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전철 사업, 중랑천 뱃길 조성, 현대대학교 유치 등 지역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 정문헌, 송훈석에게 2전2승

### 속초-고성-양양서 재선

"저에게 주신 한 표, 한 표에 지역발전을 바라는 소중한 의미와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되고 낙후된 고향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높으신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서 정문헌(새누리·사진) 후보가 현역 3선 의원인 송훈석(민주통합)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당선됐다.

17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정 당선자는 부친인 정치원로 정재철씨가 한 번, 자신이 두 번 등 모두 세 차례 송 후보와 대결할 기이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재철씨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 후보에게 패한 후 정계를 은퇴했다. 아들인 정 당선자는 2004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재선 현역 의원이었던 송 후보에 맞서 승리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정 당선자가 나서지 못해 이들의 대결은 무산됐다.

이번 선거를 낙후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인물을 뽑는 선거라고 규정한 정 당선자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역이 생동하는 설악-금강으로 도약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설악동 재개발, 금강산 관광 재개, 양양 로프웨이 등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 막말로 무너진 김용민 ... '나꼼수' 응원도 안 통했다

### 노원갑 새누리 이노근 당선

민주통합당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가 과거에 내뱉은 막말의 뒷에 걸려 결국 제도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선거 막판까지 '나꼼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전을 노렸지만 '막말 논란'에 따른 후폭풍 앞에 끝내 무릎을 꿇었다. 이날 김 후보 선거 캠프에선 오후 6시 TV 출구조사 결

과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에게 패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지지자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떴고 일부 선거 캠프 관계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쓸쓸한 모습이었다. 김 후보 측은 선거 당일까지도 당선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중앙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막말 파문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나꼼수' 멤버들이 나서 총력전을 폈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주요 지지기반인 트위터에서도 "김용민을 구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상황은 정반대였다. 김 후보는 애초 지지기반이 약했던 중·장년층은 물론 30~40대 여성층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념보다는 인물을 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외면도 패배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노원지역이 서울 강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곳인 만큼 학부모들이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joongang.co.kr

건학이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 인·덕·대·학·교

# 총장 초빙

접수기간 2012년 4월 16일~4월 25일

www.induk.ac.kr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인덕학원

일자리 만들기, IPTV가 책임진다!

최저의 책

## IPTV 뉴비즈니스 혁명

13,000원 | 구입문의 02-2000-5302 | 중앙일보사사내마케팅

충청남도 공고 제2012-349호

## 분묘개장(이장)공고 2차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등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연번	분묘소재지	분할 전 지번	분할 후 지번	기수	비고
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산35-4	578-9임	27기	
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산33-4	566-20임	37기	
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산100-1임	132-18임	7기	
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산100-6임	132-21임	7기	

- 개장사유 : 선장 ~ 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편입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정원추모공원
-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 신고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서무과 ☎041-330-7013
-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 기 타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축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집행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충청남도지사

# 미군전용 오피스텔!

## 5천투자/월세80만

## 5년 임대보증서 발급!

US HS-DP직계약. US-K55 임대약정. 영구위탁 운영관리. 부대셔틀버스운행. 통역, 세탁, 푸드시스템 운영

# 분양문의 : 1577-5168